

## 주요 내용

### ■ 제조업 가동률 정체의 배경 ■

#### 최근 동향

- (생산량 증가 속의 가동률 정체) 최근 산업 생산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% 내외 수준에 머무름

#### 가동률 정체의 배경

- (생산능력의 증대) 반도체를 포함하는 영상·음향 부문의 생산능력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보다 높아 가동률 정체가 현저, 제조업 전체의 가동률 상승이 억제
- (통계 작성구조의 상이함) 산업생산과 가동률 지표의 포괄 범위 등 통계 작성구조가 상이하어 지표상 생산 증가가 가동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

#### 산업별 가동률 추정

- 목재·나무 제품, 자동차·트레일러, 가죽·신발 산업 등의 가동률이 98년 1월에 비해 크게 증가. 이는 주로 생산능력의 감소 또는 소폭 상승 때문임
- 반면 생산능력이 크게 확장된 영상·음향 및 통신기기의 가동률은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, 생산 감소가 큰 비금속 광물, 담배 산업 등도 가동률이 하락

#### 시사점

- 98년 중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고려할 경우, 향후 생산능력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가동률 정체 현상은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음

## 현안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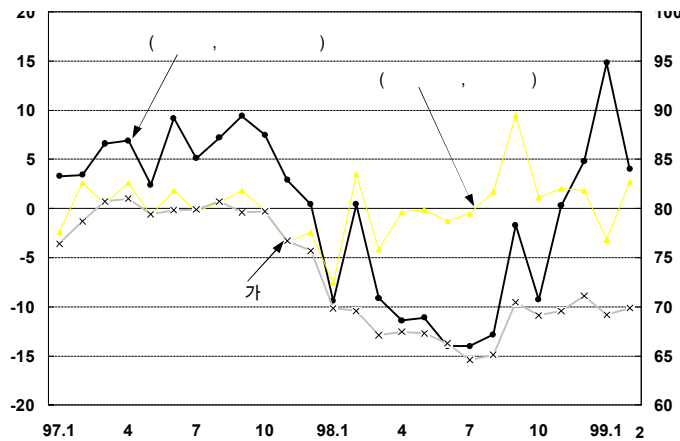
# 제조업 가동률 정체의 배경

이 보 성 bslee@hri.co.kr ☎ 724-4035

### 최근 동향

- 최근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%내외 수준에서 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
  - 2월 중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.0% 증가하여 98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
  - 1월 중 소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던 전월 대비 계절조정 산업생산도 2월 들어서 다시 상승세(2.7% 증가)로 반전
  - 반면, 2월 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.9%를 기록, 1월(69.2%)에 비해 0.9%p 상승에 그쳐 98년 9월 이후 70%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

< 최근 산업 생산 및 가동률 동향 >



### 가동률 정체의 배경

- (생산 능력<sup>1)</sup> 증대의 영향) 생산 증가와 동시에 생산 능력도 증대하고 있음

1) 생산능력은 제조업의 공급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,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충분히 가동하였을 때의 예상 최대 생산량, 즉 최대잠재생산량을 의미함

- 제조업 평균가동률 계산시 사용하는 가동률 지수(계절조정치)<sup>2)</sup>는 생산 능력에 대한 실제생산량의 비율을 이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생산 능력과 생산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평균가동률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게 됨
- 실제로 98년 1월과 99년 2월 사이에 생산지수는 7.29%(97.5→105.0) 증가한 반면 생산능력 지수도 7.69%(113.8→122.1) 증가하여 평균가동률은 0.3%p (69.6%→69.9%) 증가하는데 그침<sup>3)</sup>
- 특히 가동률 산정시 가중치가 높고 최근 생산 증대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하는 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부문의 생산 능력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생산 증가율보다 높아, 가동률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<sup>4)</sup>

**< 영상음향 부문의 생산 및 생산능력 추이 >**

(전년동월 대비, %)

	가중치*	98년 12월		98년 1월		99년 2월	
		생산	생산능력	생산	생산능력	생산	생산능력
영상음향 부문	1167.1	49.6	75.0	41.3	68.0	27.8	44.9
제조업 전체	1000.0	5.1	9.9	15.0	7.6	4.0	5.3

주 : 가중치는 가동률 산정시 사용되는 수치임

- (통계 작성 구조의 상이함) 포괄 범위 및 품목의 설정 등 통계 작성 구조가 상이하여 지표상 생산 증가가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
- 산업 생산 지수는 광공업 및 전기·가스업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반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제조업 중 일부를 제외한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
- 또한 일반적으로 산업생산 전년동월비는 계절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지수를 사용하는 반면 제조업 가동률은 계절조정지수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음

2)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

$$\text{제조업 평균가동률} = [\text{기준 연도(95년) 평균가동률} \times \text{비교시 가동률 지수}] / 100$$

3) 98년 설비투자가 38.5%나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생산능력이 flow(투자)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만,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stock(자본량)의 함수이기 때문임

4) 이는 98년 하반기 이후 64M 메모리의 양산 체제 돌입에 따른 설비 확장 및 성능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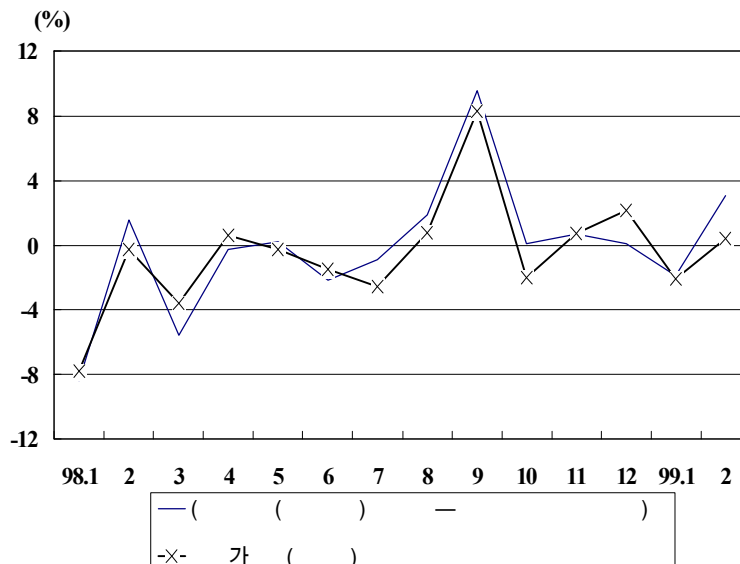
**< 통계 구조의 상이함 >**

	포괄 범위	대표 품목	대표도
산업 생산 지수	광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업	- 665개 품목 (95년 광공업 부문 총생산액의 1/5000 이상 되는 659개 품목 + 전기 가스 등 6개 품목)	- 95년 부가가치 생산액을 기준으로 84.9% 포괄
가동률 지수 생산 능력 지수	제조업 23개 중분류 중 20개 업종 (의복 및 모피 전문, 출판 인쇄업, 재생 재료 가옥 처리업 제외)	- 229개 품목 (95년 제조업 생산액의 1/5000이상의 품목 중에서 생산능력 산정이 용이한 품목)	- 제조업의 59% 포괄

**산업별 가동률 추정**

- 통계청에서는 제조업 전체의 평균가동률만을 작성하고 있지만 생산능력과 산업생산 계절조정지수를 이용할 경우 산업별 가동률 변동을 추정할 수 있음
- 아래 <그림>에서 보듯이 생산량의 계절조정지수와 생산능력의 전월비를 이용하여 가동률 전월비 증가율을 추정할 경우 실제 제조업 가동률 추이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음

**< 생산 및 생산능력 지수 및 평균가동률간의 관계 >**



- (추정 결과) 목재 및 나무제품(61.5%), 자동차 및 트레일러(25.3%), 가죽 및 신발(23.6%) 등의 가동률이 99년 2월 현재 98년 1월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· 반면 영상·음향 및 통신기기(-226%), 비금속 광물(-4.5%), 담배(-3.4%) 등은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
· 가동률이 크게 상승한 부문의 경우 산업생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생산능력은 크게 감소하였거나 소폭 증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

< 산업별 가동률 변동 추정 결과 >

(단위: %)

	산업	생산(계절조정)	생산능력	추정 가동률 변동
가동률 상승	목재·나무	50.9	-10.6	61.5
	자동차·트레일러	27.5	2.2	25.3
	가죽신발	-5.9	-29.6	23.6
가동률 하락	영상·음향·통신	44.7	67.3	-22.6
	비금속 광물	-8.1	-3.6	-4.5
	담배	-4.7	-1.3	-3.4

주: 각 수치는 98년 1월과 99년 2월 사이의 증가율을 나타냄

시사점

- 가동률 정체 현상은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음

· 98년 중의 급격한 설비투자 위축을 고려할 경우 향후 생산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가동률 정체 현상은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음

· 또한 현재 가동률 정체의 가장 큰 요인인 반도체 부문(영상·음향·통신 부문에 포함)의 생산능력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향후 시장 전망도 낙관적이므로 생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

- 반면, 경제 회복이 지연되거나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생산 감소를 유발하여 가동률 정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

· 가동률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장래 수요 전망에 기반한 생산 증가가 필요함

·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 경기 회복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사관계의 안정도 필수적임